

張仁傑傳 研究

鄭 相 珍*

목 차

I. 序 論	2. 立功과 補助的 敵對者
II. 民譚의 受容樣相과 英雄小說의 面貌	3. 陰助者와 그 性格
III. 構造的 特徵과 意味	4. 空間意識
1. 主人公의 身分과 試鍊	IV. 作品의 英雄小說의 意義
	V. 結 論

I. 序 論

張仁傑傳은 군담 또는 영웅소설로 분류되고 있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¹⁾ 주지하다시피 영웅소설은 영웅의 일대기라는 서사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다량의 군담모티브를 수용하여 자아와 세계의 심각한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소설의 상업화에 편승하여 筆寫는 물론 坊刻, 活字 등으로 출판되어 고소설의 어느 유형보다도 두터운 독자층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런데 본고의 연구대상인 장인걸전은 영웅소설적 구조와 성격을 띤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방각이나 활자본으로 출판된 바 없으며, 다만 필사본 1종만이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²⁾ 그동안 이 작품에 관한 연구 또한 金起東에 의한

* 부산외국어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1) 鄭鈺東, 古代小說論(螢雪出版社, 1982) 및 金起東, 韓國古典小說研究(教學研究社, 1983) 참조.

2) 서울大學校 圖書館, 「가람文庫」本. 後記에 辛丑 九月 十三日 金山 金泉 紫陽洞

경계 소개와 개평이 있었을 뿐이고,³⁾ 영웅소설의 유형적 연구에서조차 장인결전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론에서 상론하겠지만 장인결전은 구전되고 있는 민담을 수용하여 영웅소설적 변모로 형상화하면서도 동시에 인물, 사건, 배경 등 여러 측면에서 영웅소설의 일반과는 다른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이 작품은 조선조 말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世態小說들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의 사회상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삽화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논의의 진행 순서는 우선 민담과 소설의 대비를 통하여 민담의 소설적 수용양상과 작품의 영웅소설적 면모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작품의 구조적 특징을 영웅소설의 일반적 서사구조와 관련하여 그것이 가지는 나름의 의미를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끝으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장인결전이 갖는 작품적 의의 및 가치를 영웅소설이란 측면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Text는 서울大學校 도서관소장 필사본으로 삼았다.

II. 民譚의 受容樣相과 英雄小說의 面貌

고소설의 장르적 기원 중의 하나를 설화에 두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다만 그것이 어떤 설화의 부분적 수용이나 구조적 골격까지의 수용이나 하는 점만 문제가 될 뿐이다. 그런데 장인결전을 보면 민담의 수용이 작품의 전반에 걸쳐 있다고 하겠는데, 사건 전개는 물론 주인공의 신분, 보조적 적대자, 음조자, 배경 등에서 <異人이된 소금장시>라는⁴⁾ 민담과 구조적 골격을 같이 하고 있다. 이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소설과 민담의 순차적 서사 단락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심용천宅에서 이 작품을 보고 필사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필사본이 더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筆寫者는 서울에서 金泉으로 移居한 사람으로 남자이다.

3) 金起東, 앞의 책, pp. 317-321.

4) 韓國民俗綜合報告書(全北篇), 文化公報部編(文化財管理局, 1980), pp. 640-641

張仁傑傳

- ① 고려 충숙왕때 광춘도 땅에 장익이란 부호가 살았는데 자식이 없다.
- ② 부인이 하늘의 죄를 얻은 결과라 하면서 선업을 행하도록 한다.
- ③ 장익은 빈민구제를 통하여 仁德을 쌓는다.
- ④ 임부인은 천상노인이 내려와 자식을 점지하는 태몽을 꾸고 인걸을 잉태한다.
- ⑤ 인걸은 독서와 무술을 연마하면서 성장한다.
- ⑥ 13세에 부모와 사별한다.
- ⑦ 문과에 장원하자 국왕이 중용하려하나 신하들이 상인의 아들임을 내세워 극력 반대한다.
- ⑧ 다시 무과에 장원하나 조정에서는 벼슬을 줄 생각을 않는다.
- ⑨ 조정 대신들 집에 기숙하면서 3년간 하인 노릇을 하는 것은 물론 많은 재물을 바친다.
- ⑩ 선전관의 벼슬을 얻는다.
- ⑪ 우직이란 친구의 꾀에 빠져 정소저와 통정하려다가 망신만 당한다.
- ⑫ 가산은 탕진되고 선전관마저 파직된다.
- ⑬ 실의에 빠진 장인걸은 자살하려 하나 驛吏가 말린다.
- ⑭ 역리가 영남 인주에 재변이 일어나 용맹있는 자를 구하니 자원해 보도록 권한다.
- ⑮ 장인걸은 자원하여 인주목사가 된다.
- ⑯ 재변을 일으킨 자는 오래 묵은 여우와 원숭이다.
- ⑰ 이방의 집 자물쇠에 점신한 중국상인 이연쇄의 혼령의 음조로 요괴를 퇴치한다.
- ⑱ 장인걸은 이부상서가 된다.
- ⑲ 죽지 않고 도망간 여우 중의 한마리가 여진국의 장수로 둔갑하여 高麗를 침공한다.
- ⑳ 장인걸은 대원수로서 출전하여 적을 격퇴한다.
- ㉑ 장인걸은 승상이 된다.
- ㉒ 왕의 총애를 받았던 신빈과 화평군이 반란을 일으키자 장인걸이 평정한다.

4 韓國文學論叢 第12輯

- ㉓ 송나라에서 역모를 꾀한 장인걸을 압송하라고 한다.(도망간 암여우 중의 한 마리가 황제의 后로 둔갑하여 복수하기 위함)
- ㉔ 중국으로 간 장인걸은 여우를 퇴치한다.
- ㉕ 장인걸은 천하병마대도독이 된다.
- ㉖ 인접한 세 나라의 흉적들이 연합하여 송나라를 침공하자 장인걸이 격퇴한다.
- ㉗ 하북지방에 도적이 대성하자 장인걸은 기주자사가 되어 평정한다.
- ㉘ 이연쇄의 아내와 아들을 찾아 주고 그의 혼령을 위로한다.
- ㉙ 장인걸은 귀국한다.
- ㉚ 정승이 되어 선정을 베풀다가 70세에 벼슬을 그만두고 방장산에 들어가 신선이 된다.

異人이 된 소금장사

- ① 옛날에 소금장수가 소금을 덮는 유지 덕분에 天氣를 잘 보아 異人이란 소리를 듣는다.
- ② 고을의 변괴를 퇴치할 이인을 구한다.
- ③ 소금장수는 자원한다.
- ④ 재변을 일으킨 자는 수천년 묵은 암여우다.
- ⑤ 대문고리에 접신한 중국 상인의 혼령의 음조로 요괴를 퇴치한다.
- ⑥ 대국천자가 소금장수를 보내라고 한다.(도망간 암여우 중의 한 마리가 천자의 총첩으로 둔갑하여 복수하기 위함)
- ⑦ 소금장수는 중국으로 가서 암여우를 퇴치한다.
- ⑧ 중국에서 부귀를 누리다가 고향으로 돌아온다.

우선, 이상에서 소개한 양자의 순차적 단락 중 공통점을 추출하여 표로써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異인이 된 소금장시	張仁傑傳
주인공의 종속신분	상 인	상인의 아들
보조적 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괴(여우) ● 중국황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괴(원숭이 · 여우) ● 여진족 ● 신빈과 호평군 ● 중국황후 ● 홍적 ● 허부의 도적
음조자	쇠불이에 접신한 亡者의 혼령	쇠불이에 접신한 亡者의 혼령
음조자의 生時身分	중국 상인	중국 상인
공간적 배경	국내, 중국	국내, 중국

위의 대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첫째, 주인공의 종속신분이 소금장수 또는 상인의 아들로 다 같이 常民이란 점, 둘째, 변괴를 일으킨 자가 요괴라는 점, 셋째, 음조자가 亡者의 혼령으로 생시신분이 중국 상인으로 풍랑을 만나 파선되자 그 혼령이 쇠불이에 접신한 점, 넷째, 사건의 공간적 배경이 국내에서 중국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점 등에서 공통인자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장인결전이 민담을 수용하여 소설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소설로서 구조화된 장인결전은 영웅소설의 유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영웅소설은 「탄생-시련-투쟁과 승리-입공과 부귀 획득」이라는 주인공의 일대기적 구조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인결전도 이와 같은 영웅소설의 일대기적 구조를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즉 장인결전의 주인공이 장익부분의 선행을 통한 잉태와 만득자로 태어났다는 것, 천상노인의 점지라는 태몽이 있었다는 것, 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여건 때문에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가산까지 탕진하자 자살을 꾀할 정도로 극도의 시련을 겪었다는 것, 국난의 평정을 통하여 신분이 상승되고 부귀를 획득하였다는 내용

등에서 그러하다.⁵⁾ 이것은 곧 장인결전이 민담을 중심으로하여 결구되었으되, 거기에 탄생과정, 시련, 대결구조의 확대 등을 통하여 영웅소설적 면모로 구조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장인결전은 민담의 수용을 통한 영웅소설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은 민담의 단순한 再構가 아닌 창작 영웅소설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다시 말하면 장인결전의 작자는 구전하는 <異인이 된 소금장사>의 민담을 수용하되, 그것을 소설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현실관과 세계관을 투영하여 민담 자체와는 엄격히 구별되는 하나의 완결된 창작 서사물을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제재적 연원이 무엇이든 간에 일단 소설로서 형상화된 작품은 민담과는 별개의 존재이고, 관심의 대상은 소설인 장인결전 그 자체라 하겠다.

III. 構造的 特徵과 意味

장인결전이 서사구조상 영웅소설의 그것과 상응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곧 영웅소설로서 장인결전만이 갖는 구조적 특징 내지 독자성이란 말로 요약될 수 있다.⁶⁾ 이것은 다음 몇 개의 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主人公의 身分과 試鍊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실질적이건 형식적이건 양반의 후예이다. 달리 말하면 고귀한 혈통을 지닌 귀족적 영웅이다. 하층체험이나 하층의식이 여느 영웅소설보다도 뚜렷이 부각시키고 있다는 장경전만 보더라도, 비록 장경이 부친대부터 가난을 면치 못하였으나 “여남북쪽설학동의한처시잇스니성은당이요명

- 5) 이 점은 바로 장인결전이 영웅소설에 편입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6) 張仁傑傳의 구조적 독자성은 특정한 민담의 소설화로 인한 자연적 귀결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本文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소설은 작자의 예술성에 의해서 창출된, 口碑文學이 아닌 記錄文學이다. 그러므로 작자는 구비문학과는 또 다른 세계를 창출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추구하려는 그 무엇을 보이려고 한다. 장인결전의 구조적 특징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은취라별호는 사운선심이라공녘후당진의후예라”(방점필자)⁷⁾고 한 것으로 보아 그의 家系는 양반이었고 장경은 몰락한 양반의 후예임을 알 수 있다. 장경의 이러한 신분 설정이 고귀한 혈통이라는 영웅소설의 일반적 특징을 답습한 형식적 장치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특권층에 편입할 수 있는 복선으로서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그러나 장인결전의 경우는 다르다. 우선 그의 가계나 신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을 인용하면,

- ㉠ 광춘도싸에한사람이었으니성은장이요명은익이니가세가부요하여삼국을통화하니자금과빚은은곳곳지꿈우지니사서그운이공중에서려……
- ㉡ 명짜를보이니일흠업난선비요한낫상인이라(방점필자)
- ㉢ 왕후장상이어썩썩가잇으리요사람의게잇논니력덕을시험치아니호고경의말과갓지저별노썩진던엇지과저를보이리요.

㉠은 紫金과 白銀을 집안에 가득히 쌓은 부자임을 나타낸 대목이고, ㉡은 장인결이 문과에 장원하여 국왕이 중용하려 하자 신하들이 商人이란 이유를 들어 극력 반대하는 부분의 내용이다. 그리고 ㉢은 신하들의 반대에 왕이 응수한 대목이다. 이상 ㉠~㉢에서 처럼, 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부자라는 점, 상인이기 때문에 중용할 수 없다는 점, 가문을 따지면 과거도 불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인결이 어느 계층의 인물인지 쉽게 짐작이 간다. 요컨대 장인결은 처음부터 常民身分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장익이 상민신분이면서도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商人이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 후기 특히 봉건왕조 말기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격변기였다. 인구의 증가와 양반·농민층의 분해, 그리고 貢人의 買聚活動과 이에 따른 상품생산의 발달, 화폐의 지속적인 유통 등 17·8세기 이래의 사회적 변동은 널리 상행위를 자극하여 이른바 私廩과 私商都賣行爲가 성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전과 사상도매는 정부의 특권상인에 대한 비호책에도 불구하고 더욱 광범위하게 그 활동을 확대하게 되었다. 그것은 각종 物貨에 걸쳐서 도시나 지방의 場市·浦口에서 전국적으로 행하여졌고, 또 班·常을

7) 京版本, 巴里東洋語學校本. 金東旭편, 景印古小說板刻本 全集 五. p. 735.

막론하고 도매활동에 종사하게 되어 富房·士族에서부터 鄉班·土豪에 이르기까지 도매를 통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농사로 삼게까지 하였다고 한다.⁸⁾

장익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동에 편승하여 부를 축적한 사상도매인이라 하겠다. 더우기 그는 治産하는 과정에서 상인 특유의 惡德도 쌓은 것으로 짐작이 가는데, 得男을 위하여 어진 마음을 갖도록 권유한 그의 부인의 말에서 그 사정을 알 수 있다.⁹⁾

장인걸은 부친이 이룩한 富의 덕분에 상민신분에 걸맞지 않은 상층체험을 하면서 성장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상층체험은 가진 자의 풍요한 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층민으로서의 행세까지 포함된다. 왜냐하면 그는 상민이면서 양반행세를 하였을 뿐 아니라 경서를 숙독하고 무술을 연마하면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18·9세기 이후에 오면 신분의 우열은 명목화되고 경제적 관계가 사회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차원으로 모든 관계가 발전되고 있었다고 한다.¹⁰⁾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관계가 계층 구분의 척도가 되었다는 뜻인데, 장인걸의 양반행세도 이런 측면에서 그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장인걸의 양반 행세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그의 富로써 포장된 양반신분은 현실적 삶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었을런지 모르나 현실적 특권을 누릴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¹¹⁾

장인걸의 과거응시는 그의 身分格上意志에서¹²⁾ 비롯된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는 봉건왕조 말기의 사회변화와 사회병리적 현상에 편승하여 양반 행세를

8) 韓祐勳, 19C末의 韓國의 社會狀況, 韓國社會, 思想史論選(學文社, 1982), pp. 371-372.

9) 리빅옥이나 히오십의 이르러사십구년그른닐을세닷고착한군자가되였다하든이오날이 말씀과갓도다엇지질겁고반감지아니하 리요먼저마음을곤치고죄물을헛터인명울구제 하 여옛날사람을본바다그른마음을곤치지못하 면죄물을써대실상마음이아니라차라리 아니셈만갓지못하 니부디마음을단속하 여착하게하 압소서.

10) 鄭奭鍾, 朝鮮後期社會變動史研究(一潮閣, 1983), p. 299.

11) 朝鮮後期에서 納粟受職이란 제도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상승하던 계층은 형식적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었고, 또한 형식적이며 실권이 없는 관직을 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인 특권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다.

12) 여기서의 '格上'은 '上昇'과 다른 의미로 사용한 말이다. 즉 상민에서 양반으로 초월하는 階層間的 身分移動을 의미한다.

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실질적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格上 하려는 의도에서 과거에 응시한 것이다. 그리고 장인결은 그 결과 文·武 양과에 장원을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서 일어난다. 세계는 상민출신인 장인결의 문·무 양과 장원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科試를 발판으로 제도권에 편입하고 나아가 특권적 부귀를 획득하려는 장인결의 의지는 조정 신하들의 극력 반대에 부딪힘으로써 좌절되고 만다. 더우기 과거에서의 장원급제가 도리어 그에게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는 계기마저 되었다.

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특권이 상실된 상태에서의 출생 때문이건 적대세력의 횡포 때문이건 시련을 겪는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특권층에 편입될 수 있는 소설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곧 양반의 후예가 그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겪는 시련은 시련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身分上昇 내지 復權 의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하겠다. 장경전의 경우만 하더라도 장경이 겪는 하층체험은 상민들의 현실적 질곡을 대변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층세계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것에 못지 않게 시련의 극대화를 통한 그의 신분상승의지를 더 강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아진다.¹³⁾

그러나 장인결전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 다른 영웅소설의 주인공 같으면 특권적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직접적 발판이 되었을 장원급제가 도리어 시련을 안겨준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상인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일상적인 삶에서는 장애가 되지 않을 지 모르나, 제도권의 인물로서 특권적 삶을 누리는 데는 피할 수 없는 제약이 된 셈이다. 국왕이 장인결을 중용하려 하자 商人이기 때문에 중용할 수 없다고 극력 반대하는 신하들의 말에, 국왕이 “왕후장상이 어찌씨가있으리요사람의계잇는니”라고 한 것은 국왕의 말이라기보다 국왕의 입을 빈 작가의 말이다. 신분적 질서가 무너지고 주자주의적 권위가 땅에 떨어진 봉건왕조 말기의 사회라고 하지만, 국왕이 스스로 이런 말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13) 장경전과는 달리 정적간의 갈등에서 시련을 겪게 되는 劉忠烈傳의 경우, 비록 시련이 관념적·추상적으로 서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형상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文·武를 겸비한 걸출한 인물인 장인걸은 常民이라는 신분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제도권외의 편입이 차단되자 자신이 지닌 富를 이용하여 신분격상을 꾀하려 한다. 일종의 買職인 셈이다.

일부 부패한 관료 및 權威들과 富를 축적한 상민들 간에 매관매직행위가 다반사로 행하여졌던 당시이고 보면 장인걸의 매직 의도나 특권층의 매관행위는 그리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장인걸의 의도를 간파한 부패관료층이 그를 축재의 도구로 철저히 이용한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벼슬자리 하나 얻기 위하여 장인걸은 高官宅에 기거하면서 막대한 재물을 상납하는가 하면 3년간 종 노릇을 한다. 그리하여 얻은 벼슬은 무관말직인 선전관이다. 문·무 양과에 장원급제한 장인걸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벼슬이라 하겠으나 그것마저 오래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우직이란 자의 됴에 빠져 정소저와의 通情에 말려 오히려 파직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관료로서의 도덕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을 탕진하면서도 벼슬살이는 커녕 도리어 주위 사람들에게 조소의 대상이 된 장인걸은 결국 자살을 꾀한다. 곧 시련의 극치라 하겠다.

장인걸은 애당초 특권층의 이념이 투사되어 형성된 부귀공명이라는 지향가치의 획득으로부터 차단된 하층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걸이 時流에 편승해서라도 신분상승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지만 신분상승 욕구는 부패한 관료들에게 축재의 好機가 되어 이용만 당한 채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요컨대 장인걸의 신분상승 욕구와 부패한 관료들의 속셈이 서로 맞물린 데서 장인걸의 시련은 극한 상황까지 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장인걸의 시련은 시련자체의 의미를 넘어서 당시의 혼탁한 사회병리 현상을 깊이 반영한다 하겠다.¹⁴⁾

2. 立功과 補助的 敵對者

소설은 자아와 세계와의 갈등을 중심과제로 삼고 있는 서사문학의 대표적 인 장르이다. 그러므로 소설의 주인공은 세계와의 대립·갈등을 통하여 자기 지향하는 바 그 무엇을 성취하거나 구현하려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14) 이점은 장을 달리하여 논의될 것이다.

자아를 둘러싼 제반 환경 및 적대 관계에 있는 인물들을 포괄하지만, 갈등구조적 측면에서 특히 주목할 대상은 자아와 대결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다.

그런데 영웅소설에 등장하는 보조적 적대자는¹⁵⁾ 일상의 존재이다. 즉 간신, 흉적, 역적 등으로 대표되는 현실의 인물이다. 그러나 장인결전에 등장하는 보조적 적대자는 일상적 존재가 아닌 비밀상적 존재인 妖怪로 설정되어 있다. 달리 말하면 장인결전은 특이하게 비밀상적 존재인 요괴와의 대결을 통하여¹⁶⁾立功은 물론 그의 지향가치도 획득한다. 다음 대목을 보자.

“영남인주목지변이충심하여관원이나라가면상등이언하여죽으니쥬난거슴슴
의혹여관장을두지아니혹면비성이이산하여고을이망할거시고고오리업스면나라
이엇지평안하리요인주목사를지원하여변괴를제어혹면……”

인주의 변괴란 오래 묵은 여우와 원숭이가 밤만 되면 나타나 고을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말함이다. 사악한 동물의 장난으로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였고 목사로 부임하는 자마다 죽고 말아서, 한 고을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었다. 여기서 원숭이와 여우는 바로 국가의 적대자이자 장인결에게는 보조적 적대자인 셈이다. 기존 세력으로서의 퇴치의 한계를 절감하였기 때문에 조정에서 身分上의 구분없이 榜을 붙여 요괴퇴치자를 공모하기에 이르렀고 장인결은 生死의 갈림길에서 자원하게 된 것이다.

장인결과 요괴와의 대결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는다. 첫번째의 대결에서 살아남은 두 마리의 여우 중 한 마리가 여진족의 장수로 둔갑하여 고려를 침공함으로써 두번째의 대결이 있게 되고, 나머지 한 마리가 중국 황후로 둔갑하여 장인결에게 복수하려는 데서 세번째의 대결이 있게 된다. 이러한 반복된 요괴와의 대결과 그것의 퇴치를 통하여 장인결의 영웅성은 더욱 부각되고 그의 지향가치 또한 획득하게 된다. 결국 장인결전의 갈등구조의 핵은 요괴와의 대결인 셈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요괴를 국가적 적대자로 설정한

15) 補助的 敵對者란 주인공의 개인적 적대자가 아닌 국가적 적대자로, 주인공의 志向價値를 획득하는 과정에 등장하는 적대자를 말한다.

16) 逆謀를 꾀한 임빈과 화평군, 中原을 침공한 흉적, 화북의 도적 등도 그의 立功과 직접적 관계가 되는 적대자이나 張仁傑이 제도권내에 편입되고 특권층의 인물로서 그의 위치를 확보하는 직접적 계기는 妖怪退治에 있었기 때문에 요괴와의 대결이 장인결전의 중심 갈등이라 하겠다.

소설적 의미다. 다시 말하면 비일상적 존재와의 대결이 갖는 구조적 의미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의 전제로써 두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장인결이 민중적 영웅으로서 상민·의지의 소유자라는 점이고, 둘째는 상민이 제도권에 편입되고 그리하여 특권적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점이 그것이다.

요괴의 作亂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儒者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일종의 怪力亂神이다. 일찌기 공자는 怪力亂神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¹⁷⁾ 朱子의 해석을 빌리면 그것이 非理之正이기 때문이다.¹⁸⁾ 요괴의 장난 또한 비리·지정으로 儒者들은 그 존재조차 부정하는 대상이다. 그런데 요괴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은 곧 그 퇴치가 어렵다는 의미와도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부정하는 만큼이나 퇴치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정에서 임명한 목사들이 임지에 가자마자 죽고 말았다는 것은 그런 사정을 반영한다 하겠다.

그러나 상민, 즉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다르다. 민중은 세계의 합리·비합리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 대결과 그 극복만이 주된 관심거리다. 다시 말하면 세계의 어떠한 횡포도 용납하지 않고 어떠한 시련이라도 견디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진 그리고 세계는 보는 대로 존재하고 행동하는 대로 개조될 수 있다는 의지의 소유자이다.¹⁹⁾ 이것은 곧 상민적 세계관과 그 의지라고 하겠는데, 세계의 합리·비합리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요괴의 존재도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퇴치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앞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장인결은 상층적 체험을 하면서 성장하였지만 그의 뿌리는 常民이다. 동시에 그는 영웅적 기상을 타고 난 인물이다.²⁰⁾ 곧 민중적 영웅인 셈이다. 민중적 영웅은 상민들의 세계관과 그 의지의 구현자임에는 부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는 상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장원급제를

17) 子不語怪力亂神(論語, 述而篇).

18) 怪異勇力 悖亂之事 非理之正.

19) 趙東, 韓國小說의 理論(知識產業社, 1981), p. 176.

20) 張仁傑이 非凡性을 지닌 인물임을 암시하는 소설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즉 장익부부의 胎夢에 한 노인이 나타나 “상천이하감하사날로하여금자식하나점지혹라혹시기로지도차로왔거니와이아히탄성후의초분이험악호문내어지지못홀이요후분이귀히되문네죄과천선호미라.” 하였는데, 後分이 貴히 된다는 것은 곧 예사로운 인물이 아님을 암시한다 하겠다.

하고도 벼슬은 차치하고 극도의 시련만 겪었다. 이것은 장인걸의 현실적 한계이자 동시에 현실의 굴절 없는 반영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영웅적 활약을 통한 지향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나 하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인하는 사대부 곧 유자 계층들이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해결함으로써 가능하다 하겠다. 여기에 요괴설정의 소설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요괴는 비일상적인 존재이고, 그러므로 합리적 사고를 가진 유자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장인걸은 그것의 존재를 인정함은 물론 퇴치할 수 있는 인물이다. 왜냐하면 그는 민중적 영웅으로서 상민·의지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결국 일상적 대결에서 좌절한 장인걸은 비일상적 존재와의 대결을 통하여 立功도 하고 志向目標도 획득한 셈이다. 장인걸전은 이점에서 영웅소설적 면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웅소설의 일반과는 달리 특이한 대결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3. 陰助者와 그 性格

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은 자기의 지향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그 실현 과정에 항상 음조자(원조자)가 있기 마련이다. 도사(승)라고 범칭되고 있는 그들은 주인공의 스승적 위치에서 주인공의 행위와 결단까지 통제하는가 하면 주인공의 운명까지 결정짓는 至高한 존재로서 행동하고 있다.²¹⁾ 한편 그들의 존재적 의미 또한 개인적인 것이 아닌 국가적인 것에 있고, 따라서 철저한 국가관이 확립된 인물이다. 이러한 도사의 행위와 이념적 바탕은 곧 忠으로 무장된 주인공은 물론 사대부들의 의식과도 부합된 인물이라 하겠다.

그러면 장인걸전의 음조자는 어떠한가. 우선 그는 民間의 俗信에서 창출된 인물이다. 중국 상인인 이연쇄가 장사 차 고려로 오던 중 풍파를 만나 破船되자 돛대의 쇠뿔을 잡고 사투하지만 끝내 죽게 되어 그 혼령이 돛대의 쇠뿔에 붙게 되었는데, 그것이 冶匠에 의해 쇠뿔으로 만들어지고 다시 인주관아의 이방 집 대문에 걸리게 된다. 장인걸은 바로 이 쇠뿔에 接神한 이연쇄의

21)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이화여대 출판부, 1985), p. 146 참조.

혼령의 음조로 영웅적 활약도 하게 되고 지향목표도 성취하게 된다.

古人들은 靈과 肉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一元的인 것으로 보지 않고 육신은 사라져도 영혼은 그대로 남아 활동을 계속한다는 즉 二元的 體系로 파악했다. 天壽를 다하지 못하고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인 재앙에 의하여 非命 橫死한 사람은 安宅을 얻지 못하고 冤鬼가 되어 세상에 浮游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고대인의 사유 곧 怨靈思想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장인걸전의 음조자가 자연적 재앙에 의하여 횡사한 이연쇄의 혼령이라는 것은 이같은 민간적 속신에 바탕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인걸전에 나타난 음조자의 행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닌 보상을 전제로 한 상대적 음조이며, 동시에 이 음조자는 철저히 개인적 차원의 존재로 파악된다.

이연쇄는 自然死가 아닌 非命橫死이기 때문에 그의 혼령은 일종의 원귀이다. 따라서 원귀가 된 이연쇄는 伸冤해 줄 대상을 찾았고 그 대상이 바로 장인걸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장인걸은 이연쇄의 혼령의 도움으로 국가적 공을 세움으로써 특권적 부귀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연쇄 또한 장인걸에게 베푼 음조의 댓가로 가족과 해후하여 그간의 회포를 푸는 것은 물론 영혼의 안주처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곧 일방적인 음조가 아닌 보상을 전제로 한 상대적 음조임을 알 수 있겠고, 나아가 음조자인 이연쇄의 존재는 영웅소설의 일반에 나타나는 도사처럼 투철한 사회의식이나 국가의식으로 무장된 인물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결과적으로 장인걸과 이연쇄가 상호 음조자가 된 이 소설의 구조는, 각기 처한 현재적 상황의 극복이 두 존재의 중심과제였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 차원에서 同病相憐의 처지로 이해되어 자연스럽게 두 존재의 상호음조가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4. 空間意識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이 雄志를 펼치고 있는 공간적 배경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소설적 의미를 지닌다. 고소설의 대부분이 중국을 무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당시 고소설 작자들의 중국문화에 대한 맹

목적 찬미와 中土에 대한 이상적 동경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 있고 보면,²²⁾ 공간적 배경을 우리나라에 둔 작품인 경우에는 그것이 갖는 소설적 의의는 매우 크다 하겠다. 배경은 소설의 리얼리티와 깊은 관련의 가지면서 독자들에게 생생한 공간체험을 인식케 한다. 말하자면 독자에게 현장감과 사건 및 행동의 신뢰감을 배경이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²³⁾

장인걸전은 “고려국시절의출순왕직위삼년은…”이라 하여 공간 및 시대적 배경을 우리의 것에 두고 있다. 게다가 주인공의 활약상도 우리나라를 중심 무대로 하면서 중국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우선 무대와 활약상을 다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 인주의 요괴퇴치
- ㉡ 여진족의 침공토벌
- ㉢ 신빈과 화평군의 역모평정
- ㉣ 황제의 后로 둔갑한 요괴퇴치
- ㉤ 홍적의 격퇴
- ㉥ 화북의 도적 평정

㉠㉡㉢은 고려에서의 활약상이고, ㉣㉤㉥은 송나라에서의 활약상이다.²⁴⁾

영웅소설들이 우리의 의식을 구현한 우리의 문학이면서 주인공의 활동 무대와 국적까지 중국으로 설정하였다는 것은 작품의 文學上 價値의 여하를 떠나서 작가의식의 측면에서 고소설의 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장인걸전은 주인공의 국적과 활동무대를 우리나라에 두고 결구하면서 나아가 영웅적 활약상을 중국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이라는 일방적인 중심에로만 국한되었던 인식공간에 커다란 변화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은 영웅소설에서의 장인걸전이 갖는 독자적 성격이라 하겠으며 작자의식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마땅한 것이라 생각된다.²⁵⁾

22) 鄭鉉東, 앞의 책, p. 172.

23) 김용범, 道敎思想과 英雄小說(문학아카데미, 1991), p. 26. 특히 英雄小說의 경우, 작품에 구현된 民族意識 문제를 논의할 때, 空間問題는 그렇게 간단히 취급될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24) 전체의 분량면에서 앞의 출생과정과 시련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반반 정도이다.

25) 이점은 章을 달리하여 논의될 것이다.

한편 장인걸전의 공간의식은 海外遠征軍談類와도 그 체를 달리 한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조 말기 활자본으로 출판된 고소설 중에서 海外遠征軍談을 다룬 일군의 영웅소설이 있다. 王簫傳, 李麟傳, 申遺腹傳, 李泰景傳 등이 그것이다. 이들 작품의 주인공들은 국내에서 태어난 인물들로 中原에서 영웅적 기상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공의 국적만 우리 것에 두었지 국내적 활동은 전무한 편이며, 실령 국내적 활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出將이 아닌 入相 정도이다.

玉簫傳의 이운학은 어사가 되어 해적을 격퇴하였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영웅상은 宋을 침공한 蜀軍의 격퇴에서 드러나고 있고, 李麟傳의 이린은 국적만 신라이지 활동무대는 중국이다. 또한 申遺腹傳의 신유복도 明을 침공한 서번·가달·용고의 연합국을 격퇴함으로써 영웅상이 발휘되고, 李泰景傳에서 이태경의 아들 셋 중 둘은 明나라에서 태어난 인물이고 이연만이 조선에서 태어났으나 모두 武功을 세운 곳은 역시 중국이다.

이들 작품들이 여느 영웅소설과는 달리 주인공의 국적을 우리나라에 둔 것은 작가의식면에서 긍정적 측면이라 하겠다. 그러나 활동무대를 중국에 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自國을 위해 투쟁한 인물이 아닌 중국을 위해 투쟁한 인물로 설정하여 영웅으로서의 존재 목적이나 가치를 중국 쪽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하겠다.²⁶⁾

그러나 장인걸전은, 앞서 보인 것처럼 인주의 요괴퇴치, 역모의 평정, 여진족의 격퇴 등은 自國을 위한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상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같이 장인걸전은 주인공의 출신 및 활약상을 일차적으로 국내에 둌으로써 존화의를 탈피한 민족주의적 의식을 보인 작품이라 하겠다.

장인걸이 宋朝에서 행한 일련의 행위도 그 성격이나 행위면에서 해외원정군담류와는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인걸이 宋에 원정하여 입공하기까지의 일련의 영웅적 행위가 尊華라는 봉건적 이념이나 명분에 얽매인 사대적

26) 여기에 대해서, “영웅의 활동이 異民族을 물리친 우리민족의 항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랑캐를 물리치고 中華世界를 높이는 尊華黜夷라는 봉건적 이념의 구현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민중들에게 근대적인 민족주의 모습을 제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봉건적 미몽에 사로잡히게 하는 역기능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권순궁, 「申遺腹傳」과 주제의식의 한계, 碧史李佑成先生定年退職紀念 國語國文學論叢(驪江出版社, 1990), pp. 562-564 참조.

사고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장인걸의 入宋계기부터가 그렇다. 송의 황제가 요괴의 사주를 받아 장인걸에게 역모의 누명을 씌워 압송하라는 명을 내리자 장인걸은 송나라로 가게 된다. 그런데 장인걸의 입송은 종속국의 신하로서 위기에 처한 종주국을 구해야 되겠다는 자발적 의무감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강대국 국왕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물론 약소국의 신하로서 피할 수 없는 당시의 사정을 반영한다 하겠으나, 입송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황제의 后로 둔갑한 요괴는 宋朝의 적대자일 뿐 아니라 장인걸 개인의 적대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요괴의 퇴치는 송나라를 구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개인적인 적대자를 퇴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²⁷⁾

장인걸은 요괴퇴치, 흉적의 도벌, 도적의 평정 등 宋을 위한 영웅적 행위의 결과로 신분상승의 혜택을 입게 되는데 이 경우의 해석도 주의를 요한다. 즉 장인걸의 영웅적 행위가 표면적으로는 송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자신의 귀국의 길을 트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된다.

요괴를 퇴치한 후, 장인걸은 송의 황제에게 자신의 귀국을 청하고 심지어 고려의 왕까지 와서 장인걸을 귀국시키려하지만 인걸의 영웅적 면모에 혹한 황제는 이를 거절한다. 한번 더 입공하면 귀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 장인걸은 다시 흉적의 내침을 격퇴하는 공을 세웠으나 그래도 귀국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장인걸은 이연쇄의 혼령에게 “너가황조의드러온지임의칠년이되 여스니엇지 亨고국으로나가리요”하고 묻자 “공을한번더이루고나갈거시니아 죽새를지다리쇼서”라는 말을 듣는다. 이 말을 믿고 장인걸은 다시 河北지방에 대성한 도적들의 난을 평정하자 마침내 귀국할 수 있었다. 장인걸이 입송에서 귀국하기까지의 이러한 일련의 사정은 곧 그의 송에서의 행위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귀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의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존화적 의식에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27) 그러나 申遺腹傳을 예로 든다면, 위기에 처한 明이 구원병을 청하자 신유복이 대원수가 되서 출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宗主國에 대한 從屬國으로서의 의무감에서 나온 것으로 그 계기부터가 靡華的이다.

IV. 作品의 英雄小說의 意義

앞 장에서 영웅소설 구조의 일반적 典型性과의 대비를 통하여 장인걸전이 갖는 구조적 특징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장인걸전이 여타 영웅소설처럼 영웅의 일대기적 서사구조를 지닌 작품이란 측면에서 공통성을 가지나, 한편 주인공의 신분과 시련, 입공과 보조적 적대자, 음조자와 그 성격, 공간의식 등의 측면에서 영웅소설의 일반과 구별되는 구조적 독자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장인걸전의 이 구조적 독자성은 근본적으로 작가의 현실관과 세계관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작가의 창작 의도나 의식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작가는 어떠한 세계인식의 바탕 위에서 장인걸전을 창작하고자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작품에서 드러나는 주제 의미와 그 소설적 의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영웅소설로서의 장인걸전이 갖는 작품의 의의가 될 것이다.

앞에서 검토하였던 사항들을 바탕으로 하여 장인걸전이 여타 영웅소설과 달리 갖는 작품의 의의를 정리해서 그것을 자세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첫째, 常民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상민의 신분극복 의지를 다루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영웅소설은 양반들의 정치적·경제적 몰락상과 이에 대한 극복의지를 중심과제로 삼고 있다. 이것은 곧 영웅소설이 兩班志向의 文學이지 庶民志向의 文學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영웅소설을 두고 봉건시대의 世俗의 神話라는 극단론적 해석까지 제기되었다.²⁸⁾ 張景傳이나 張風雲傳의 주인공이 하층민의 생활과 다를 바 없는 체험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양반의 후예라는 신분적 전제에서 볼 때, 이들 작품이 봉건적 신분질서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장인걸전은 이러한 영웅소설의 일반적 관행에서 벗어나고 있다. 장인걸이 富를 축적하였다고는 하지만 근본은 상민이다. 그것도 봉건적 직업관에서 천민에 속하는 상민의 아들이다. 따라서 장인걸은 처음부터 신분상 특권층에의 편입이 차단된 인물이다. 작가는 이러한 상민 신분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가서 특권적 부귀를 누리도록 결구한

28) 서인석, 장경전, 韓國古典小說作品論(集文堂, 1990), p. 437.

것은 작가 나름의 문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층민의 신분극복 의지라는 작가의 문제 인식이다.

이른바 민중의식 내지 시민의식의 형성과 그 팽창은 전통적인 계층사회의 구조적 변모와 직결되어 있다.²⁹⁾ 다시 말하면 신분사회의 전통적 구조가 변모되는 데서 민중의식이 형성되었고 신분사회의 구조적 변모의 심화와 더불어 민중의식 또한 팽창되어 갔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조가 상층 중심에서 하층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 민중의식의 궁극적 지향점이라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조선 후기부터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고, 말기에 오면 봉건체제가 외피적인 것에 불과할 정도로 급속도로 붕괴되어 갔다. 따라서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의식이 사회 일반에 널리 확대되고 민중들의 실존적 조건에 관한 자각과 함께 그들의 현실적 권리에 대한 욕구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이 가는데, “왕후장상이어찌씨가잇느냐”하는 왕의 말은 (비록 작가의 말이지는 하지만)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하겠다.

결국 장인결전에서 주인공의 生得身分을 상민으로 한 것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추세를 나름대로 간파한 작자의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理念志向的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욕망의 성취와 그 의식의 구현이다.

작품 속에서 작중인물의 행위는 그 행위의 목표로서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어떠한 대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³⁰⁾ 그런데 대부분의 고소설이 그렇지만, 특히 영웅소설의 경우 작중인물의 행위는 ‘忠’이념의 구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겠다. 비록 충이 궁극적·목적적 가치로서의 의미가 아닌 수단적인 의미로서 구현되었다 할지라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은 사실이다. 이것은 곧 영웅소설들이 유교적 이념을 논리 전개의 바탕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장인결전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장인결의 신분격상 및 상승에 관계하는 적대자는 국가의 적대자이며, 적대자의 퇴치 또는 평정은 국가·국왕을 위한, 즉 ‘忠’의 구현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장인결이 유교적 이념을 지향하는 인물이고, 나아가 그의

29) 洪慶杓, 韓國近代小說作家意識研究(螢雪出版社, 1984), p. 20.

30) 朴逸勇, 英雄小說의 類型的 變異와 그 小說史의 意義, 서울대학교 大學院(國文學研究會, 1983), p. 7.

행위가 '忠'을 전제로 한 것이냐 하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忠·孝·烈 등으로 대표되는 유교적 이념이 조선 후기에 오면 그 본래의 진정한 가치를 상실하고 지배층의 특권유지의 수단이나 지배체제의 논리로 이용되었다. 달리 말하면 양반 지배층은 자신들의 특권적 삶과 지배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현실적 방편으로써 유교적 이념을 앞세웠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교적 이념은 더 이상 삶의 목적이나 이상적 가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그 허구성을 스스로 노출하게 되는 셈이다.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이 '忠'을 수단적 가치로 이용한 것은 이러한 양반지배층의 이념이 변질되어 가는 사회적 상황의 반영이라 하겠다.³¹⁾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바는 그들이 부귀공명이라는 지향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유교적 윤리를 수단적 가치로 이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념 자체를 자신의 삶과 괴리된 것으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유교윤리 자체를 부정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장경전의 경우, 방자로서의 하층생활을 겪는 장경이 결국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특권층에 쉽게 편입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본래 양반의 후예였다는 사실과 양반의 후예는 특별한 제약없이 언제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지배층에 편입될 수 있다는 봉건적 관념에 따른 유교윤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인결전은 그렇지 않다. 앞장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장인결이 시련을 겪게 된 단초적 계기는 유교이념에 따른 신분상의 봉건적 논리를 내세운 양반지배층 때문이다. 장경이 양반의 후예였기에 과거에 급제하자 특권층에 쉽게 편입될 수 있었는데 반하여, 장인결은 상민출신이었기에 그렇지 못하고 혹독한 시련만 겪었다. 이는 곧 장경은 유교이념 지향적 인물이고 장인결은 유교이념을 지향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양반지배층의 시각에서이다. 따라서 양반지배층의 이러한 시각 때문에 장인결은 文·武 양과에 급제하고서도 벼슬을 얻지 못하고 그의 존재가치마저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여기서 장인결은 유교이념의 구현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임을 알 수 있다.

이점은 그의 입공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장인결이 인주목사로 자원한 것은 가산을 탕진하고 자살까지 피할 정도의 극한 상황에서 요행히

31) 朴昌蘭, 「張景傳 研究」, 이화여대 대학원(1985), p. 56.

자구적 상황극복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장인걸의 인주목사 자원은 국왕에 대한 충성을 염두에 둔 행동이 결코 아니었으며 극한의 실존적 상황에 대한 개인의 자구적 타개책에 불과했던 것이다. 따라서 ‘忠’ 이념과는 무관한 개인적 차원에서 장인걸이 인주목사로 자원한 것이다. 이는 더우기 장인걸이 조정으로부터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 ‘忠’과 무관하다 하겠다.³²⁾ 결과적으로 인주목사로의 재난극복이 나라를 위한 끝은 되었지만, 그 근본 동기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절망을 극복하려는 개인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장인걸의 反理念志向的, 自己中心의 行爲는 음조자로 등장하는 이연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영웅소설의 일반에 등장하는 道士는 철저한 국가관을 가진, 즉 忠理念으로 무장된 인물이란 점은 앞 장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장인걸전에서 이연쇄는 이와 相反되는 인물이다. 우선 그가 충이념과는 무관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그의 生時身分이 상인이자 뱃사공이란 점에서 시사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연쇄의 음조 또한 국가나 국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인걸에게 도움을 주고 그 댓가로 자기의 불행한 죽음을 伸冤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즉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개인적 목적을 위해 행동한 인물이라 하겠다.

상민들은 유교윤리라는 규범적 가치의 테두리내에서 자신의 존재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본다. 달리 말하면 봉건체제가 지향하는 집단적 가치나 이념을 자신들의 삶의 절대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그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외압에 의한 것이고, 그러므로 수동적·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그들은 내면적으로는 집단적 자아가 아닌 개인적 자아라는 의식 속에서 행동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장인걸전에 구현된 주인공과 음조자의 자기 중심적 사고와 그 행위, 그리고 양자의 신분이 상민이란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민의 자기중심적 개인의식의 소설적 반영이라 하겠다.

32) 그러나 張景이나 張風靈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그들은 大科에 급제하자 거기에 상응하는 관직을 얻은 다음 국가적 위난이 일어났을 때 출전하여 武功을 세움으로써 부귀공명을 획득한다. 따라서 그들의 무공이 개인적 욕망 성취의 수단적 의미를 지닌다 할지라도 현실적 특권에 편입된 다음의 행위라는 점에서 ‘忠’을 전제로 한 행위라 하겠다.

셋째, 관료사회의 부패상의 露臺이다.

영웅소설의 주인공이 그것이 운명적이든 사회적이든 시련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절대적이며, 또한 유형적 특징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필요조건인 한 가지다. 장인걸전이 영웅소설에 편입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도 시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련은 자아가 세계의 벽에 부딪힘으로써 비롯되고 구체화된다. 장인걸도, 상민은 특권적 부귀를 누릴 수 없다는 세계의 벽 앞에 완전히 패배함으로써 시련의 극에 이른다. 이것을 대결구조로 파악할 때, 상민과 특권층과의 대결로 볼 수 있고,³³⁾ 그 결과는 상민의 패배로 귀착된다.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변동과 혼란이 극심하였고, 동시에 상민의식이 성숙한 조선후기라고 하지만 봉건지배체제 하에서의 양자간 대결에 상민의 패배는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서 장인걸의 패배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근거한 당위적 귀결이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패배 그 자체보다 그것을 부패한 관료사회와 결부하여 형상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장인걸의 시련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특권지배층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작가의 창작의도로 파악된다. 달리 말하면 영웅소설의 구조적 특징을 살리면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려는 작가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소설은 어떤 형태로든지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영웅소설의 경우도 극도로 환상적인 상층세계라는 봉건시대의 신화적 세계에 매달림으로써 현실인식과 그 문학적 형상화에 소홀하였다는 지적도 있지만,³⁴⁾ 소대성전, 장풍운전, 장경전 등 일련의 영웅소설들에서 주인공들의 시련과정 상에 조선후기 사회의 실상을 나름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작품들은 주인공의 하층체험을 통한 소설 공간의 확대 내지 현실성의 증대라는³⁵⁾ 측면에서 소설적 의의가 있을지 모르나, 시련 자체가

33) 소설이 自我와 世界의 對立, 葛藤을 표현한 것이라 할 때, 이 자아는 순수한 고립된 개인이 아닌 집단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런 점에서 몰락양반층의 신분상승의지를 다룬 소대성전, 장풍운전, 장경전 등은 몰락양반과 몰락하지 않은 양반사이의 대립·갈등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34) 서인석, 장경전(앞의 책), p. 443.

35) 서인석, 장경전(앞의 책), p. 437.

특권층의 비리와 결부하여 시현된 것이 아니다. 더우기 영웅소설 중에서 政治圈內的 문제를 다룬 일부의 작품도 있으나 그것은 政敵間的 대립·갈등을 중심으로한 것이지 위정자의 부패상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지 않다.

이와는 달리 장인결전에서 특권층의 비리를 부분적으로나마 문제로 삼은 것은 영웅소설의 새로운 면모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특권층의 비리가 문제로만 노출되었을 뿐 그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나 응징이 없었다는 점은 부분적인 한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이 사회적 문제를 중심 갈등으로 다룬 사회비판적 소설이 아닌 영웅소설이고, 주인공 또한 영웅적 인물이긴 하지만 혁명적 인물이나 반체제적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할 때, 특권층의 비리에 대한 적극적 응징이나 대응에 소홀했던 점은 이해될 수 있다.

넷째, 尊華黜夷의 사고에서 벗어나 民族主體意識의 구현이다.

영웅소설의 출현동인에 대한 논의는 여러 측면에서 개진되고 있으나³⁶⁾ 그 중의 하나는 壬·丙兩亂期の 시대인식에 두고 있다. 즉 양란을 통하여 민족적 수모를 겪었던 우리 민족으로서의 외적에 대한 적개심이 고조되었고, 이러한 시대 의식이 민족의식과 결부되어 영웅소설의 출현을 자극하였으며, 또한 작품에 그러한 의식이 내밀화되었다는 것이다.³⁷⁾ 물론 유충렬전 등 일부 작품은 戰後의 민족의식 만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작품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이들 작품이 당쟁으로 인하여 失勢한 계층에서 그들의 권력회복 의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³⁸⁾ 자꾸까지는 몰라도 작품 속의 투영 문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영웅소설 속에 민족의식이 투영 내지 구현되었다고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족의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주인공의 국적과 활동무대를 중국으로 설정하고, 宋·明등으로 대표되는 漢族의 보호에 영웅적 행위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36) 三國志演義의 영향, 葭仁貴征東의 영향, 당쟁기의 정치의식의 영향, 壬丙兩亂期の 시대意識의 영향 등이 그것이다. 한국고전소설 편찬위원회 편, 韓國古典小說論(새문사, 1980), pp. 181-187 참조.

37) 朴晟義, 韓國古代小說論과 史(集文堂, 1986), p. 200 참조.

38) 徐大錫, 軍談小說의 出現動因反省. 韓國古典小說(啓明大, 出版部, 1980), p. 122.

소설이 허구적 산물이고 따라서 인물·사건·배경 등은 실질적이 아닌 가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소설의 내용과는 하등의 역사적 관련이 없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의식을 구현하면서 인물·사건·배경 등에서 모두 중국이라는 外皮가 씌워져 결구되었다는 것은 소설이 허구라는 인식이 전의 문제이다. 즉 봉건적 미몽에 사로잡힌 작가의 小中華意識의³⁹⁾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이런 점은 海外遠征軍談類에서도 마찬가지다. 앞장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비록 주인공의 국적은 우리 것에 두었지만 그 활동양상이 중국에서 중국의 正統王朝를 위한 투쟁으로 일관한 것은 곧 尊華黜夷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다운 의미의 민족의식 내지 주체의식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였을 때 가능하다 하겠다.

우리는 장인결전에서 그런 점을 찾을 수 있다. 주인공의 국적을 우리나라에 두고, 전반부에서 요괴의 퇴치, 역모의 평정, 여진족의 격퇴 등 우리민족을 수호하는 데 주인공의 행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은 바로 민족의식 내지 주체의식을 구현한 것이다. 한편 후반부에서 주인공의 활동 또한 근본적으로 尊華黜夷라는 봉건적 명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지만, 중화에 대한 의무감이나 자의적이 아닌 自己保護的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주인공의 의식만큼은 주체성을 잃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장인결전은 작품의 공간적 배경 설정은 물론, 인물의 설정과 사건 전개 등을 우리나라 중심으로 결구함으로써 영웅소설의 전형에서 탈피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한편으로 염두에 두면서도 우리의 주체적 민족의식을 다루려는 작가의 변화된 역사의식 내지 현실인식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장인결전은 바로 이점에서 영웅소설 일반과는 다른 소설적 의의를 가진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39) 英雄小說의 작가층이 몰락양반층이고 그들의 원상회복의 꿈을 허구화하였다고 볼 때, 그들의 이념은 몰락하지 않은 양반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영웅소설의 작가층 또한 실세층과 같이 사대적 사고에 젖어 있는 인물이라 하겠다.

V. 結 論

張仁傑傳이 필사본 1종만 현전한다는 것은 당시 향유층의 저변 확대와 독자의 인기도란 측면에서 문제로 제기될 수 있기에, 이에 관한 연구의 비중 또한 상대적으로 가감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고소설 중 근대지향적·사실적 성격의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봉건지향적·관념적 성격의 작품에 비하며 出刊 횟수가 적고 異本등이 극히 빈약한 편이란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조선조 말기에 형성된 世態小說이나 일부 화석화된 판소리계 소설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는 결국 이들 작품들이 다른 고소설 작품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당대의 독자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는 의미인데 그렇다고 하여 그들의 작품적 가치까지 貶視할 수는 없다. 이들 작품들은 기존의 봉건체제나 이념, 그리고 그에 예속된 인물들을 대상으로 풍자·비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환기 사회의 실상을 평민적 시각에서 매우 사실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학 유산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장인걸전도 현전 작품의 異本이 빈약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특히 영웅소설의 일반과는 다른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옹분의 관심과 해석 및 평가의 작업이 요구되는 작품이다. 따라서 장인걸전의 연구는 영웅소설의 새로운 면모와 위상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장인걸전의 구조적 특징과 그 의미, 그리고 작품의 의의를 검토하여 보았다. 지금까지 진행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인걸전은 '異人'이 된 소금장시'라는 구전 민담을 수용한 작품이다. 그러면서 이 작품은 민담을 수용하되 주인공을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에 어울리게 재창조하고, 군담모티브의 수용등을 통하여 사건을 확대하면서 영웅소설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가진 작품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장인걸전은 현전의 영웅소설의 典型性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독자적 성격의 작품이기도 하다. 즉, 주인공의 신분이 상민이란 점, 주인공이 상층적 체험을 하면서 성장하였다는 점, 주인공의 과거 급제가 오히려 시련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 적대자가 비일상적 존재라는 점, 민간적 속신에서 창출된 음조자를 설정하였다는 점, 주인공의 국적을 국내에 두고 그 활동무대 또한 국내를 중심으로 중국으로까지 확대하였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점이 바로 장인걸전이 영웅소설로서의 위상을 가지되, 또한 영웅소설의 일반적 전형성과 구별되는 구조적 특징 내지 독자성을 가진 작품으로 파악되는 근거이다.

한편 이러한 사실의 분석을 기초로 장인걸전이 갖는 작품의 의미과 그 지향목표, 그리고 이와 관련한 작가의 현실인식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장인걸전은 상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의 신분극복의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 집단적 봉건이념의 구현이 아닌 개인적 욕망 성취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 관료사회의 비리와 부패상을 문제의식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 尊華黜夷의 사고에서 벗어나 민족주체의식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장인걸전에 나타난 이러한 특징은, 기존의 영웅소설들이 양반들의 정치적, 경제적 몰락상과 그 극복의지를 다루고 있고, 비록 표면적이긴 하지만 집단적 가치나 이념의 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권력층의 부패상이 문제로써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주인공의 영웅적 행위가 宋·明으로 대표되는 한족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 등과 결부시켜 볼 때, 분명 작품의 의미와 작가의식의 측면에서 장인걸전이 영웅소설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부각시켜 주는 의의 있는 작품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끝으로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장인걸전의 형성시기 문제를 간략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장인걸전에 구현된 지향가치나 의지로 볼 때, 봉건적 질서나 이념을 극복하려는 근대적 의식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이런 의식이 구현된 조선조 말기의 작품인 世態小說(李春風傳, 襄裨將傳 등)에 들어 있는 삽화들이 장인걸전에 수용되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장인걸전은 근대 의식이 그런대로 자리잡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던 시기에 창작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소설사적 측면에서 고소설에서 신소설로 이행되는 시기라 하겠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다.